

북미 고사양 전력망 투자… 전력기기 3사, ‘풀세트 수주’ 전환

유안타證 “765kV 초고압 송전망 축
올해부터 북미 수주 사이클 본격화”
3사 합산 수주잔고 약 27조 달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노
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겹치며 북미 전
력기기 시장이 막대한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전력기기 빅 3사는 변압기 단
품 공급을 넘어 GIS·차단기·STATCO
M·배전기기 등을 묶은 ‘풀세트 공급’ 전
락으로 수주 방식 전환에 나서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
난 2일 보고서를 통해 765kV 초고압 송
전망 프로젝트를 축으로 북미 고사양 전
력기기 수주 사이클이 올해부터 본격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나해에도 국내 전력기기 3사는 실
적과 수주잔고를 키우며 호황을 확인했
다. 효성중공업은 매출 5조9685억원(+
21.9%), 영업이익 7470억원(+106.1%)



효성중공업이 지난해 영국 스코틀랜드에 설치한 초고압변압기.

/효성중공업

을, HD현대일렉트릭은 매출 4조795억
원(+22.8%), 영업이익 9953억원(+
48.8%)으로 초유의 실적을 각각 기록했
다. LS일렉트릭도 매출 4조9622억원(+
9.0%), 영업이익 4269억원(+9.6%)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3사 합산 수주잔고
는 약 27조원이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공급 제
약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초고압 변압
기는 수작업 비중이 높고 숙련 인력 양
성에 시간이 걸려 단기간 증설이 어렵
다. 우드맥кен지는 지난해 기준 미국 전
력변압기와 배전변압기 공급 부족률을
각각 30%, 10%로 추산했다. 글로벌 OE

M들의 증설 투자에도 수요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공급 병목은 오는 2030년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국
업체 배제 기조까지 겹쳤다.

국내 전력기기 3사는 생산능력 확대
와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풀세트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공장에 1억5700
만달러를 투자해 오는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765
kV 초고압 송전망 투자가 본격화되는 가
운데, 현지 생산 기반을 통해 대용량 설
비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하
반기부터 고스펙 GIS의 미국향 공급도
가능해지고, 데이터센터 연계 STATCO
M 레퍼런스 확보로 패키지 수주 경쟁력
도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HD현대일렉트릭은 울산·미국변압기
공장 증설과 함께 공법 고도화, 숙련 인
력 양성,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 중이다.
완공 후 가동에 들어간 청주 배전캠퍼스

는 자동화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고도화
를 추진한다. 배전 분야는 신제품 라인
업·현지 파트너십으로 판매 채널을 다변
화하고, 회전기 부문은 선박용 축발전
기·대용량 드라이브(VFD) 패키지·10M
W급 대형 전동기로 사업을 확장한다.

LS일렉트릭은 성장 축을 북미 배전
시장으로 옮기고 있다. 초고압 변압기
시장보다 약 6배 큰 배전 분야에서 주도
권을 확보해 매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산 제2사업장 준공으로 초
고압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HVDC(초
고압직류송전)·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차세대 전력 솔루션을 확대해 시스템 단
위 수주 역량을 강화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기기 시장의 공급
자 우위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초고압 변압기는 증설에도 불구하고 중
장기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metroseoul.co.kr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병원 기반 세포처리시설 개소

‘오닉스 바이오파운드리’ 운영
병원 기반 CRDMO 플랫폼 핵심 거점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연구자들의
오가노이드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갖추고 바이오의약품 위탁연구·개발·생
산(CRDMO) 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융합연구관에서 자
사의 병원 기반 세포처리시설인 ‘오닉스
바이오파운드리(ONYX Biofoundry)
AMC(Asan Medical Center)’의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오닉스바이오파운드
리 AMC’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추
진하는 병원 기반 CRDMO 플랫폼의 핵



오상훈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오른쪽 세번째)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왼쪽 세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융합연구관에서 열린 ‘오닉스바이오파운드리 AMC’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 거점이다. 연구, 공정개발, 제조, 품
질시험, 임상, 규제 대응에 이르는 세포
치료제 개발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으로 제공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임상연구를 완벽히 지원하며, 기존
제조 센터와의 시너지를 통해 신속한 첨
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특히 오닉스바이오파운드리 AMC는

임상 현장인 병원 내부에 위치해 서울아
산병원 세포처리시설(CPF)과 연결된
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개발한 세포
기반 치료제를 연구용 또는 임상용 형태
로 직접 생산하고,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개발 전략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최적 중간연구 프로세스를 실현하
는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는 연
구에서 임상으로 이어지는 전환 과정의
시간과 부담을 크게 줄이는 요소가 될 전
망이다.

또한 광명 GMP 센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임상 전환 후 대규모 제조까지 연
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광명 GMP
센터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2022)과 세포처리시설 허가(2023)를 취
득한 임상용 GMP 시설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초기 연구 단계의
소규모 제조부터 임상 단계의 대규모 제
조까지 동일 플랫폼 내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연구-임상-초기 상용
화 단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향후 이 시설
을 기반으로 병원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을 극대화하여, 오가노이드
및 세포 기반의 정밀의학 분야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상훈 대표는
“세계적 수준의 임상 역량을 갖춘 서울
아산병원 내에 치료제 생산시설을 구축
한 것은 연구와 의료임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신약개발의 소중한 이정표”라
며 “이러한 최적 시스템에서 창출될 임
상 성과들은 신약개발과 더불어 국내 첨
단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
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
다.

/이세경 기자 seille@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소상공인·노동계 “생존권 위협”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개정 추진
골목상권 초토화·장시간 노동 ‘반발’

정부와 정치권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 소상공인단체와 노
동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
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의 독주를 막기 위한 규제 완화라는
명분이지만, 골목상권 침체와 마트 노동
자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지며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여야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나서고 있
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도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
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에 합의
했다. 그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

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하며 급성장한
반면, 대형마트는 2012년 도입된 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다. 이커머스 독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대형마트의 쇠퇴가 가속화되자 기울어
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소상공인계
는 “대기업에 골목상권을 헌납하는 행
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
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
조합연합회는 지난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
한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상생의
상징”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790만 소상공인의 생
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

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
어놓겠다는 처사”라며 “자본력과 물류망
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은 소상공인
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을 견제하
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겠
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
우는 격”이라며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 육성이야말로 온라인 플
랫폼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계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소원 청구 등 강
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노동계 역시 새벽배송 확대가 마트 노
동자들을 심야·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것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쿠팡
의 고속 성장 이면에 수많은 노동자의 죽
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알게 되었
고, 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다”며 “그
런데 난데없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논의가 나온 것은 쿠팡 규제의 본질을 심
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심야 노동자의 죽음에 대
해 기업들의 책임 회피가 통용되고 대책
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
벽배송 허용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
로 내모는 것”이라며 “당·정·청은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명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논란을 넘어 이
미 변해버린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상공
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대형마트의 손
발을 묶는 것만으로는 이미 쿠팡커머스와

새벽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골목
상권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야간
영업이나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대형마트 규제만으로는 골
목상권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
단했다. 이 교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
권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갖지 못한
차별화된 먹거리와 가격 경쟁력 등 분명
한 강점이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방향
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소상공인들
이 부족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
언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